

<2014.12.05.>

2014년 12월 05일 (금)
지역 10면

全北日報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추가 예산 확보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도 추가
총 51개 사업·국비 477억 성과

고창군은 4일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9억5000만원,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7억원 등 총 76억 5000만원의 국가예산을 신규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2015년도 국가예산안 국회심의 막바지인 11월 수차례 국회와 정부부처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펼쳤다.

박 군수는 관계기관을 방문, 생물권보전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과 상습적인 침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진천 상류지역 지방하

천 정비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확보를 요청했다.

그결과 고창군은 현재까지 51개 사업에 국비 477억원을 확보하여 열악한 재정예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대형 신규사업을 발굴 및 예산 확보를 위해 한층 더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성규기자 skk407@

172 X 60 mm

全北日報

2014년 12월 05일 (금)
지역 10면

고창군, 인천강 기수역 복원 방향 논의

군,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 보고회

고창군은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우정 군수, 김인호 부군수, 실과소장 및 용역기관 등 25명이 함께 하여 복원 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농경지, 인공제방 등으로 생태

계 단절에 따른 복원을 위해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조사를 지난 4월부터 시작했다.

기수역이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 기수가 모이는 하구역이다. 기수역은 서식 공간 형성, 기질의 다양성, 염분 농도 등으로 다양한 생물 서식이 가능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동식물상 조사 결과 법적보호종으로

포유류 수달, 삵, 조류 흰목물떼새 등 25종, 양서파충류 맹꽁이, 남생이, 황구렁이, 식물상 측백나무, 모새달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위상에 맞도록 습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대표 성공 사례를 선점하기 바라며,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공간을 조성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특별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성규기자 skk407@

172 X 59 mm

고창 생물권보전관리센터 건립 '가속'

군, 국비 19억5천만원 확보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4일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9억5천만원,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7억원 등 76억5천만원의 국가예산을 신규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우정 군수는 2015년도 국가예산안 국회심의 막바지인 11월 수차례 국회와 정부부처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생물권보전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과 상습적인 침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진천 상류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창출신 국회의원 및 부처 공무원에게 충분히 설명, 2015년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한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산하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고창군은 현재까지 51개 사업에 국비 477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대형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예산 확보를 위해 한층 더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남궁경중 기자

105 X 95 mm

전북도민일보

2014년 12월 05일 (금)

지역 10면

고창 인천강기수역 복원 논의

고창군은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복원 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농경지, 인공제방 등으로 생태계가 단절된 인천강 기수역을 복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조사에 착수한 결과, 법적보호종으로 포유류 수달, 삵, 조류 흰목물떼새 등 25종, 양서파충류 맹꽂이, 남생이, 황구렁이, 식물상 측백나무, 모새달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따라 군은 기수역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복원계획을 수립해 인천강 기수역 복원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위상에 맞도록 습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공간을 조성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특별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51 X 128 mm

고창군 국가예산 477억... 재정 '숨통'

생물권보전관리센터 건립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 등
76억5000만원 추가 성과

4일 고창군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9억5000만원,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7억원 등 76억5000만원의 국가예산을 신

규로 추가 확보하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 47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우정 군수가 2015년도 국가예산안 국회심의 막바지인 11월 수차례 국회와 정부 부처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로 열악한 군 재정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은 생물권보전지역을 효율

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주진천 상류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상습적인 침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급성과 필요성을 국회의원과 및 부처 공무원에게 설명해 2015년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관계 공무원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열정적인 활동을 펼친 박

우정 군수의 노력 덕에 고창군은 현재까지 51개 사업에 국비 477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대형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관련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중앙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

243 X 73 mm

고창군, 국비 477억 확보 '든든'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주진천 정비 사업 확정

고창군은 4일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비 19억5,000만원과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7억원 등 신규사업 2건을 추가해 총 51개 국비사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우정(사진) 군수는 군수직을 수락한 그 날부터 휴일도 반납한 채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김춘진 의원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친분을 쌓아 갔으며, 2015년도 국가예산안 국회심의 막바지인 11월에는 수차례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예



정된 고창군은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했으며,

산확보에 총력을 펼쳤는데, 그 결과 물이 477억이란 규모의 크나큰 예산이 확보된 것이다.

2013년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했으며,

또한 장맛철 상습적인 침수지역인 아산면 주진천 상류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시급성을 다뤘는데, 이 두가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확정 2015년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려 열악한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대형 신규사업을 발굴, 예산 확보를 위해 한층 더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공조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현 기자 como0912@sjbnews.com

174 X 90 mm

전북매일신문

2014년 12월 05일 (금)

지역 09면

고창, 내년도 국가예산 477억 확보

고창군이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 속에서도 신규사업을 포함, 51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군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9억 5,000만원과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7억원 등 76억 5,000만원이 신규사업에 반영돼 내년도 현안사업을 추진할 국비예산이 총 477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박우정 군수는 2015년도 국가예산안 국회심의 막바지인 지난달 수차례 국회와 정부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구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사업이 신규사업임에도 국회를 통해 예산에 반영됐다. /고창=박용관 기자

69 X 85 mm

고창군, 인천강 기수역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지난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농경지, 인공제방 등으로 생태계 단절에 따른 복원을 위해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조사를 지난 4월부터 시작했다.

기수역이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 기수가 모이는 하구역으로, 다양한 생물

서식이 가능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조사 결과 법적보호종으로 포유류 수달, 삿, 조류 흰목물떼새 등 25종, 황구렁이, 식물상 측백나무, 모새달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우정 군수는 “습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공간을 조성키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창=김준완기자

112 X 52 mm

전민일보

2014년 12월 05일 (금)
지역 09면

고창군 국비 477억 확보... 재정 숨통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 등 신규사업 2건 내년 추진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4일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9억 5천만원,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7억원 등 76억5천만원의 국가예산을 신규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우정 군수는 2015년도 국가예산안 국회심의 막바지인 11월 수차례

국회와 정부부처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생물권보전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과 상습적인 침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진천 상류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창출신 국회의원 및 부처 공무원에게 충분히 설명한 결과 2015년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열정적인 활동을 펼친 박군수의 노력 덕에 고창군은 현재까지 51개 사업에 국비 477억원을 확보하여 열악한 재정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대형 신규사업을 발굴, 예산 확보를 위해 한층 더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창=임동갑기자

157 X 71 mm

“수달·삼 등 법적보호종 서식 확인”

고창군 인천강 기수역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

고창군은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우정 군수, 김인호 부군수, 실과소장 및 용역기관 등 25명이 함께하여 복원 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농경지, 인공제방 등으로 생태계 단절에 따른 복원을 위해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조사를 지난 4월부터 시작했다.

기수역이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 기수가 모이는 하구역이다. 기수역은 서식 공간 형성, 기질의 다양성, 염분농도 등으로 다양한 생물 서식이 가능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

고 있다.

동식물상 조사 결과 법적보호종으로 포유류 수달, 삼, 조류 흰목물떼새 등 25종, 양서파충류 맹꽁이, 남생이, 황구렁이, 식물상 측백나무, 모새달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위상에 맞도록 습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대표 성공 사례를 선점하기 바라며,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공간을 조성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특별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임동갑기자

104 X 95 mm

고창군, 막바지 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

신규사업 2건 추가 총 51개 사업... 국비 477억원 쾌거

고창군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센터 건립 19억5,000만원,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7억원 등 76억5,000만원의 국가예산을 신규로 추가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박우정 군수는 내년도 국가예산안 국회심의 막바지인 11월 수차례 국회와 정부부처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생물권보전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과 상습적인 침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진천 상류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창출신 국회의원 및 부처 공무원에게 충분히 설명한 결과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열정적인 활동을 펼친 박 군수의 노력 덕에 고창군은 현재까지 51개 사업에 국비 477억원을 확보해 열악한 재정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대형 신규사업을 발굴, 예산 확보를 위해 한층 더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169 X 72 mm

새만금일보

2014년 12월 05일 (금)

지역 08면

고창, 인천강 기수역 복원 검토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

고창군이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우정 군수, 김인호 부군수, 실과소장 및 용역기관 등 25명이 함께해 복원 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농경지, 인공제방 등으로 생태계 단절에 따른 복원을 위해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조사를 지난 4월부터 시작했다.

기수역이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 기수가 모이는 하구역이다.

기수역은 서식 공간 형성, 기질의 다양성, 염분농도 등으로 다양한 생물 서식이 가능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동식물상 조사 결과 법적보호종으로 포유류 수달, 삵, 조류 흰목물떼새 등 25종, 양서파충류 맹꽂이, 남생이, 황구렁이, 식물상 측백나무, 모새달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위상에 맞도록 습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해 대표 성공 사례를 선점하기 바라며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공간을 조성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특별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56 X 150 mm

고창군, 76.5억 국비 추가

내년도 신규사업 2건 반영... 총 51개 사업 477억 확보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4일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9억5천만원,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7억원 등 76억5천만원의 국가예산을 신규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우정 군수는 2015년도 국가예산안 국회심의 막바지인 11월 수차례 국회와 정부부처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생물권보전지역을 효율적이

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과 상습적인 침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진천 상류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창출신 국회의원 및 부처 공무원에게 충분히 설명한 결과 2015년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열정적인 활

동을 펼친 박 군수의 노력 덕에 고창군은 현재까지 51개 사업에 국비 477억원을 확보해 열악한 재정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대형 신규사업을 발굴, 예산 확보를 위해 한층 더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168 X 84 mm

고창 인천강에 범정보호종 서식

군, 기수역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

고창군은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우정 군수, 김인호 부군수, 실과소장 및 용역기관 등 25명이 함께 해 복원 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농경지, 인공제방 등으로 생태계 단절에 따른 복원을 위해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조사를 지난 4월부터 시작했다.

기수역이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 기수가 모이는 하구역이다. 기수역은 서식 공간 형성, 기질의 다양성, 염분 농도 등으로 다양한 생물 서식이 가능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동식물상 조사 결과 범정보호종으로

포유류 수달, 새, 조류 흰목물떼새 등 25종, 양서파충류 맹꽁이, 납생이, 황구렁이, 식물상 측백나무, 모새달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위상에 맞도록 습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해 대표 성공 사례를 선점하기 바라며,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공간을 조성하고, 군민과 관광객들이 특별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168 X 62 mm

전략매일

고창군, 재정 숨통 트인다

신규사업 2건에 76억 5000만 원 추가 ... 총 51개 사업 국비 477억 확보

고창군은 지난 4일 고창생물권보전 지역 관리센터 건립 19억 5,000만 원,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7억 원 등 76억 5,000만 원의 국가예산을 신규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우정 군수는 2015년도 국가예산 안 국회심의 막바지인 지난달 수차례 국회와 정부부처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생물권보전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과 상습적



박우정 군수

신 국회의원 및 부처 공무원에게 충실히 설명한 결과 2015년 예산에 반

인 침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주진천 상류 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창출

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열정적인 활동을 펼친 박 군수의 노력 덕에 고창군은 현재까지 51개 사업에 국비 477억 원을 확보해 열악한 재정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대형 신규사업을 발굴해 예산 확보를 위해 한층 더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동현 기자

170 X 88 mm

전주일보

2014년 12월 05일 (금)

인물 15면

고창, 내년도 국가예산 477억 확보

고창군은 4일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센터 건립 19억5천만원,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7억원 등 76억5천만원의 국가예산을 신규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우정 군수는 2015년도 국가예산안 국회심의 막바지인 11월 수차례 국회와 정부 부처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생물권보전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과 상습적인 침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진천 상류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창출신 국회의원과 및 부처 공무원에게 충분히 설명한 결과 2015년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열정적인 활동을 펼친 박 군수의 노력 덕에 고창군은 현재까지 51개 사업에 국비 477억원을 확보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대형 신규사업을 발굴, 예산 확보를 위해 한층 더 정치권 및 중앙 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창=조종욱 기자

62 X 127 mm

고창, 신규사업 예산 추가 확보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76억5000만원

고창군은 4일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9억5,000만원,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7억원 등 76억5,000만원의 국가예산을 신규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우정 군수는 2015년도 국가예산안 국회심의 막바지인 11월 수차례



박우정 군수

국회와 정부부처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생물권보전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과 상습적인 침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진천 상류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창출신 국회의원과 부처 공무원에게 충분히 설명한 결과 2015년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열정적인 활동을 펼친 박군수의 노력 덕에 고창군은 현재까지 51개 사업에 국비 477억원을 확보해 열악한 재정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대형 신규사업을 발굴, 예산 확보를 위해 한층 더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종성 기자
kjs56730@daum.net

고창, 국가예산 76억 5천만원 추가 확보

고창군(군수 박우정, 사진)은 지난 4일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9억5천만원,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7억원 등 76억5천만원의 국가예산을 신규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우정 군수는 2015년도 국가예산안 국회심의 막바지인 11월 수차례 국회와 정부 부처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생물권보전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과 상습적인 침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진천 상류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창출신 국회의원 및 부처 공무원에게 충분히 설명한 결과 2015년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열정적인 활동을 펼친 박 군수의 노력 덕에 고창군은 현재까지 51개 사업에 국비 477억원을 확보하여 열악한 재정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대형 신규사업을 발굴, 예산 확보를 위해 한층 더 정치권 및 중앙 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신상수 기자

91 X 123 mm

고창, 인천강 조사용역 최종 보고회

수달·삼 등 법정 보호종 서식

고창군은 지난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우정 군수, 김인호 부군수, 실과소장 및 용역기관 등 25명이 함께하여 복원 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농경지, 인공제방 등으로 생태계 단절에 따른 복원을 위해 인

천강 기수역 복원사업 타당성조사를 지난 4월부터 시작했다.

기수역이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 기수가 모이는 하구역이다. 기수역은 서식 공간 형성, 기질의 다양성, 염분농도 등으로 다양한 생물 서식이 가능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동식물상 조사 결과 법적보호종으로 포유류 수달, 삼, 조류 흰목물

떼새 등 25종, 양서파충류 맹꽁이, 남생이, 황구렁이, 식물상 측백나무, 모새달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위상에 맞도록 습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대표 성공 사례를 선점하기 바라며,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공간을 조성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특별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상수 기자

162 X 79 mm